



롤러장



가게맥주



스티커사진

# 복고 창업 열풍... “추억을 팝니다”

70~80년대 청년들에게는 ‘롤러장’이 지금 세대의 롤러과도 같았다. 시대 흐름 속에서 지취를 갈취하던 롤러장이 최근 젊은층 사이에서 인기를 끌면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90년대 풍미했던 ‘스티커사진’을 비롯해 80년대 유행한 ‘가게맥주’가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등 복고열풍이 불고 있다.

29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광주시 북구에 ‘롤러홀릭’을 시작으로 서구에 ‘롤러300클럽’과 ‘롤러가자’ 등 최근 광주에서 롤러스케이팅이 잇달아 문을 열고 있다.

과거 추억을 떠올리며 찾아오는 7080세대는 물론, 롤러스케이팅 동호회와 가족단위 방문객, 다이어트를 위해 방문하는 등 다양한 사람들이 롤러장을 찾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30대 사이에서 연인들이 새로운 데이트 장소로 떠오르며,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층의 고객들도

70~80년대 유행 ‘롤러장’ 광주에 잇따라 개장

80년대 ‘가게맥주’ 연탄불 안주도 곁들여 인기

90년대 ‘스티커 사진’ 아날로그 감성 다시 유행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주들의 설명이다.

롤러가자 관계자는 “주말이면 보통 250여명이 찾아오는 등 손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대학생 등 20~30대 방문도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고 있는 복고열풍은 롤러장 뿐이 아니다. 도심 곳곳에서는 90년대 한창 인기를 끌었던 즉석 스티커사진의 경우 줄을 서서 기다리는 풍경마저 연출되는 등 또다시 유행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광주시 동구 충장로 2가와 황금동 일대와 광산구 1913송정역시장, 북구 전남대후문, 서구 상무지구 등 10~30대의 방문이 많은 곳마다 즉석 스티커

사진 부스가 설치되고 있다.

‘인생네컷’과 ‘포토그레이’, ‘플립폴리’ 등 스티커사진 업체에서 설치한 기기로, 독특한 점은 사진 속에 글씨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90년대 스티커사진과 달리 ‘흑백사진’이라는 것이다. ‘아날로그 감성’, ‘촌스러운 감성’ 등이 유행하면서 덩달아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다.

안유나(여·23·광주시 남구 효덕동)씨는 “스마트폰 등 화질도 좋고 쉽게 찍을 수 있는 사진도 좋지만 낯선 흑백사진이 오히려 매력적”이라며 “재미삼아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일부러 즉석 스티커사진 부스를 찾아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80년대 내에는 동네 구멍가게였다가 밤에는 간단한 안주에 맥주를 팔던 ‘가게집’도 유행가에 다시 등장하면서 부활을 예고하고 있다. 연탄불에 구운 황태나 떡대, 오징어 등 저렴한 마른안주와 병맥주가 대표적 메뉴다.

광주에서는 ‘추동가맥’을 비롯해 ‘거북이상회’, ‘짜뎨패밀리’ 등 가게집을 컨셉으로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유행하고 있다. 여기에 송정가맥·가맥포차 등 소규모 영세업자들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박진석 JS건설링 대표는 “디지털세대에 익숙하고 몸을 움직이는 체험활동이 적을 수밖에 없는 젊은층 사이에서 흑백사진과 롤러장은 흥미로운 놀이로 느껴질 수 있다”며 “가게집도 최근 트렌드인 이른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가 높아 한동안 창업시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 ■ 주간 증시 포커스

코스피 2500선·코스닥 700선 안착 시도

대형주 관심 증가... 주도주 편승 기회

코스피지수가 지난 23일 사상 처음으로 장중 2500선을 돌파하고 지난주 2496.63 포인트로 종가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은 7896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3960억원과 2804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지수도 주간기준으로 기관이 모처럼 773억원을 순매수하며 연중 최고치인 689.97포인트로 마감했다. 최근 상승세를 보인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24일 군 당국발표에 따르면 2017 아세안학대 국방장관회의(ADMM Plus)에서 한중국방부장관회담이 개최를 공식 확인하고 25일 중국 외교부의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언급 등으로 한중 갈등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화장품, 여행, 자동차, 게임 등 사드(THAATHA) 이슈로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의 강세가 돋보였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포스코가 분기 영업이익이 ‘1조클럽’에 재가입하며 3분기 매출액 15조 361억원과 영업이익 1조 1257억원을 발표했고 LG화학도 3분기 매출액 6조 3970억원과 영업이익 7896억원을 발표했다. 2500선을 돌파를 이끈 반도체와 IT 업종에 이어 철강 화학업종 등 실적호전이 확산되고 있다. 주요증권사들의 3분기 코스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49조원대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올해 수출증가율이 17%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8%에서 3% 상향조정했다.

최근 발표되는 지표들을 보면 코스피지수는 2500선돌파는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지난주 주간증시포커스에서 언급한대로 이번주 중소소비재주와 바이오 제약가 상승하면서 차별화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필자가 여러 차례 언급한대로 중소형주와 코스닥시장으로 상승세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현시장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중소형주로 이동하여야 한다. 최근 중소형주의 반등은 자금의 이동의 따른 상승전환보다는 사드우려감이 완화되면서 낙폭과대증폭의 자율반등 성격을 보이고 있다. 중소형주가 순환적 반등흐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추세적 수급변화가 필요하다.

이번주 코스피지수는 2500선과 코스닥지수는 700선 안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연초 이후 지속적인 상승으로 전기전자업종의 차익실현매물로 조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확장국면에서 중소형주보다는 IT 화학 금융 등 경기민감업종의 성장성이 높게 나타났고 3분기 실적시즌이 마무리되면서 4분기 실적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다시 대형주로의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주와 코스닥시장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의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순환매를 이용해 주도주로 편승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북지점장〉

## 삼성전자, 진공청소기 ‘스타워즈 에디션’ 출시

영화 스타워즈 개봉 맞춰

삼성전자는 영화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의 개봉을 앞두고 진공청소기 주요 제품인 파워봇과 파워건의 ‘스타워즈 에디션’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스타워즈 제작사 루카스필름과의 협업으로 탄생한 파워봇, 파워건의 ‘스타워즈 에디션’에는 영화 속 인기 캐릭터 ‘다스베이더(Darth Vader)’와 ‘스톰루(Stormtrooper)’가 적용됐다고 삼성은 설명했다.

파워봇 ‘다스베이더’ 모델은 이 캐릭터의 상징인 검정 마스크를 표현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커버를 적용했고, ‘스톰루’ 모델은 특유의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한 색감을 살려 영화 속 각 캐릭터

의 느낌을 생생하게 재현했다는 것이다.

스톰루퍼로 선보이는 파워건은 이 캐릭터가 사용하는 레이저건의 느낌을 살려 스타워즈 팬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삼성은 덧붙였다. 또 파워봇 ‘스타워즈 에디션’은 영화 속 명대사와 영화음악이 반영돼 사용자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삼성은 밝혔다.

실제로 청소를 시작할 때 ‘다스베이더’ 모델의 경우 다스베이더의 숨소리와 함께 ‘제국의 행진(The Imperial March)’이라는 음악이 재생되며, ‘스톰루퍼’ 모델은 ‘렛츠고(Let's go)’라는 대사와 영화 메인 테마 음악이 흘러 나오는 등 각 캐릭터의 특징을 살린 음향으로 스타워즈 에디션을 완성했다는게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은리더스클럽 체육대회 성금 2000만원 모금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6일 열린 광주은행장배 ‘2017 광은리더스클럽 체육대회’에서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모금한 성금 2000만원을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 은행장과 김홍균 광은리더스클럽 중앙회장,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상균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과 200여명의 광은리더스클럽 회원들이 참석했다.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모인 성금 2000만원은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광은리더스클럽은 지역 우수 중소기업 CEO 모임으로, 지난 2007년 9월 창립한

이후, 현재 약 22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지역 최고의 명문 클럽으로 성장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광은리더스클럽은 2007년 9월 창립 이래 다양한 사회적 활동과 회원사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 의 창조적인 미래를 밝히는 소임을 다해왔다”며 “광주은행은 앞으로도 광은리더스클럽과 적극적인 동반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성장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외된 이웃에 먼저 다가서는 사회적 책임경영을 다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로또복권 (제77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21 35 36 37 41	1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6,264,069,500	3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6,746,788	67
3 5개 숫자일치	1,809,379	1,731
4 4개 숫자일치	50,000	92,126
5 3개 숫자일치	5,000	1,575,045

## 가계대출 20~30대 쏠림 현상

상반기 30대 이하 28조원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엄홍수(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차주 연령별 및 신용등급별 가계대출 증감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30대 이하’가 보유한 가계대출은 28조6000억원 늘었다.

한국은행이 약 100만명의 신용정보로 구성된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이는 금융기관 자료를 집계하는 한국은행 가계신용 통계와 대출 규모, 편제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30대 이하(40세 미만)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 연령층 증가액(46조8000억원)의 61.1%를 차지한다. 가계대출의 젊은층 쏠림 현상은 올해 더 심해졌다.

작년에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140조 6000억원) 가운데 30대 이하는 51.8%(7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젊은층이 집을 장만하려고 돈을 많이 벌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대산 인테리어 (사업부)

신축건물 설계시공 상가인테리어 조립식건물  
징크시공 케뮤시공 판넬시공 렉산시공 데크시공  
싱크대 샷시 실내인테리어 아파트인테리어

**한샘가맹점** (싱크, 불박이, 욕실, 마루, 창호, 도어) **062-522-0482**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